

통합교육과 SRV를 위한 장애담론의 인문학적 확장: 연극 다시 보기를 통한 장애 재개념화의 한 시도

전 선 옥*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곽 승 철**

공주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요 약》

장애학의 연구 열기와 학문분야 간 경계를 낮추는 지식 통합의 추세가 맞물려 장애담론의 다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시대가 지향하는 완전통합교육의 구현을 위해서는 특수교육 관련인들만의 담론을 넘어 범사회적 역할 가치화(SRV)를 통한 전향적인 장애의 재개념화가 문화적 인프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문학이나 미디어 등의 문화적 텍스트를 연구하여 인간 이해의 차원에서 장애 개념을 재고하는 인문학적 탐구의 의의가 있다. 장애의 문화적 재현이 장애인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와 부정적 심상을 전복시킬 수 있을 때 장애의 미학은 성취되는 것이다. 2005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Harold Pinter의 연극 The Caretaker에서는 장애인 주인공 Aston을 대하는 Davies의 태도를 통해 식민적 권력담론의 허상을 볼 수 있고, 이를 전복시키는 극의 대단원에서 관객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 새로운 세기의 지성은 대중 속에서 지식의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때, 문화 텍스트를 통한 장애담론의 확장은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통합교육, SRV, 장애담론, 인문학, 연극

I. 서 론

1. 연구의 의의

현대 특수교육이 지향하는 완전통합교육과 나아가 전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과 복지 분야 관계자들만의 담론이 아닌, 모든 영역의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장애 담론의 확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 제1저자

** 교신저자(sckwak@kongju.ac.kr)

장애라는 기표에 대한 기의가 시대정신의 변천과 함께 불가피하게 역사·문화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도, 장애 담론이 특정 (학문)분야 내의 한정적 담론으로 머무는 현상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20세기 말엽부터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장애학(Disability Studies)의 연구 열기가 각 분야로 확산되면서 장애의 재개념화도 화두로 부각되었지만, 장애에 대한 개인적·의료적 모델을 비판하는 입장인 사회적 모델이 각광받던 초기 장애학 연구에서도 역시 사회학이 연구의 학문적 기반이 되었다.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듯이, 장애의 개념화에 있어서도 사회적 측면과 개인 차원의 의미를 동시에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학을 중심으로 한 복지 관련 분야에서 장애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안, 인문학에서는 장애가 주요 관심사가 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장애 담론이 활성화되고 다변화되면서 역사와 문화 속에서 장애(인)의 이미지 형성과 해석에 대한 인문학적 탐구(예: Davis, 1997; Mitchell & Snyder, 1997, 2000; 박승희, 2003 재인용)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주도하는 학자들로 Ingstad와 Whyte(1995)는, 장애 개념은 반드시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화적 상대주의에 기초하여 장애로 인해 부여되는 불리를 적절한 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애학 안에서 인문학적 접근은 장애를 규정함으로써 소위 정상적인 인간을 이해하는 데 한 지평을 연다고 생각하며, 장애를 통하여 문화적 텍스트들(문학, 미디어, 이미지 등)을 연구하는 것이 인간의 정의를 보다 깊이 있게 탐색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박승희, 2003). 바로 이와같이 문화적 텍스트를 통해 인문학적 차원에서 장애 개념의 범주를 재고해봄으로써, 인간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 사회 통합을 구현해보고자 하는 것은 실로 의의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역사적으로 시대정신의 변천과 함께 이루어진 장애의 상대적 개념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양한 문화 텍스트들을 통한 장애의 해석과 이해를 주목해보면, 이 시대와 향후 세대가 가져야 할 장애(인)관의 윤곽이 드러난다. 더욱이 작금의 지식 기반 정보화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 텍스트가 창출하는 새로운 이미지는 현대 시민들의 가치 체계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고 흡수되어 피드백되기 때문에,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장애 개념의 재정립을 통한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적 맥락의 인문학적 장애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병하는 특수교육 분야에서 논문 쓰기의 방법과 형식이 훨씬 개방적으로 열려있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특수교육학은 학문의 족보상 분명 인문사회학문에 속한다. 실험적·기술적 연구방법 이외에 문화기술적, 역사·철학적, 포스트모던적 글쓰기의 형식과 방법에도 지적 관심사를 넓혀가야 한다. 최근 ‘장애’의 문제를 보는 패러다임이 개인적·심리적·의학적

관점에서 사회적·문화적·정치적 관점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잘 해독해 봐야 한다. 렌즈를 바꿔 끼고 세상을 보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글쓰기의 방법과 형식이 실현되어야 한다(김병하, 2003:1).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장애학이 대두되기 전까지는 근본적으로 장애와 관련한 다양한 학제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장애학의 연구 열기와 함께 다각도로 장애 담론이 확산되어가는 최근의 추세는, 학문 분야 간의 경계를 낮추고 폭넓은 분야를 아우르는 지식의 통합이라는 현대적 연구 방향과도 맞닿아 있어 한층 의의를 더한다.

2. 연구 문제

특수학교에 재직하다 새로이 일반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게 된 대부분의 특수교사들이 특수학교에 근무하던 시절이 좋았다고 동경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벽은 높고도 두텁다고 말한다(김병하 & 조원일, 2005). 이는 환언하자면, 특수학교에서 통용되던 특수교육 관계자들의 담론이 그 세계를 벗어나면 소통되기 어려운 폐쇄성을 드러낸다는 의미이거나, 아니면 (학교)사회 구성원 모두가 특수교육적 담론을 수용하고 소통시킬 수 있는 문화적 인프라의 구축이 현저히 미비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교육받는 통합교육의 특징점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학습과 사회적 활동에서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장애인 사회 통합의 기본 철학인 정상화(Normalization) 원리가 최소제한환경의 원칙을 낳은 것도 장애학생의 삶이 최대한 정상적일 수 있도록 정상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상적인 교육환경이라면 바로 통합교육이 지향하는 의미있는 상호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곳이고, 자연히 비장애학생들도 통합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당연히 인식하고 수용하는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위의 일화에서 드러나는 실상은, 장애/비장애의 경계에 막혀 훌륭한 교육적 이념이 스며들 여지가 거의 봉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세계 각국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이 특수교육 발전의 역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에 비교적 단일 문화 사회로 발전해온 터라, 다민족과 다인종이 어울려 사는 환경에서 다양한 이념과 가치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차이와 이질성을 수용하게 된 미국이나 유럽 여러 국가들과는 다른 문화적 특성을 안고 있다. 근래 장애인 운동이 소수자 운동으로 페미니즘이나 인종 문제 등과 유사한 맥락에서 논의되곤 하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보아도 한국은 여성 문제나 혼혈인 문제 등에 있어 다민족 국가·다문

화 사회의 경우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차이, 즉 다르다는 것은 다양한 인간 조건의 보편적 특성이요, 이런 맥락에서 성별도 피부색도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도 예외일 수 없으며, 이러한 모든 차이가 인권의 차이로 이어질 수 없다는 인식은 문화적으로 체득되는 일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차이의 미학이 수용되기 어려운 문화권에서, 장애라는 차이를 초중고교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혹은 자선과 동정, 그릇된 우월감에서 나온 여유로 시혜자의 입장을 자처하는 경우에도, 장애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구촌 시대의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차이와 우열을 별개의 개념으로 인식하며, 그 모든 차이와 우열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인간사회의 최상위 개념으로 인정하는 인프라가 전사회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환경에서 통합교육은 훨씬 자연스러운 교육적 가치로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우리 사회가 교묘히 강요하는 이미지화된 장애인의 모습을 타파”(김병하, 2005:16)하여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문화 텍스트를 통한 장애의 재개념화를 고찰함으로써 장애담론의 인문학적 확장을 시도하고자 한다. 아울러 문화 텍스트에 대한 비평적 고찰을 통한 담론의 활성화라는 인문학적 연구 문제에 적합한 인문학적 논설의 체제가 될 것임도 밝혀두고자 한다. 고찰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로는 영국의 현대극작가 Harold Pinter의 *The Caretaker*를 선정하여, 장애라는 주제를 주요 모티프로 보아 기존의 비평과는 다른 시각으로 텍스트에 내재한 식민적 권력담론을 해체해 봄으로써, 장애 개념의 재정립과 장애담론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통합(교육)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인들을 포함한 범사회적 인프라로서의 장애 담론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 하나의 시도이다. 이 시대의 장애학 연구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의 다양한 접근을 포괄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인문학적 지반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인문학적 차원의 연구라 하더라도 범위를 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다양한 접근과 시도가 가능할 것이다. 문화 텍스트에 대한 비평적 고찰만 해도 엄청난 규모의 방대한 작업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다 다양한 텍스트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지 못한 불가피한 제한점을 안고 있지만, 앞으로 본 연구자를 포함한 많은 연구자들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제한점이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통합교육을 위한 장애의 재개념화 필요성

현대의 특수교육은 시대정신의 변천에 따른 사회적·제도적 성숙에 힘입어 짧지만 빠른 발전의 역사를 이루어오면서 최근의 지배적 추세인 완전 통합(full inclusion)의 이념에까지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한 인권 차원의 소수 집단 옹호 운동들, 스칸디나비아로부터 확산된 정상화(Normalization) 원리, 미국을 중심으로 한 특수교육 관련 각종 소송사건과 판례들은 현재의 특수교육(학)적 이념들을 구체적으로 확립시킨 기념비적 사안들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20세기 말에 이루어진 많은 통합교육 관련 연구들과 통합교육 관련 입법화 등을 통해, 이제 통합교육은 시대적 당위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 통합 움직임도 여타 소수 집단들의 통합 물결과 함께 역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구자료들을 통해 보면, 사회적 태도나 학업 측면에서 통합교육이 긍정적인 교육 효과로 이어진 사례가 많이 나타나 있다. 이념적 명분과 임상적 연구결과를 통한 당위성이 확보되고, 통합교육 참여 학생의 수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통합교육의 실현을 위한 다각도의 구체적인 논의가 당면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분야는 교과학습 영역과 사회성 발달 지원 영역으로, 특수교육학 차원의 세부적인 방법론 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런데 장애학생을 ‘발견하여 도와주는(identify and help)’ 시대를 지나, ‘포함하여 지원하는(include and support)’ 시대의 통합교육은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환경 조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통합교육이 교육에서의 정상화라고 할 때,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발달 가능성은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선행하는 개념이 되어야 한다. 통합교육은 무엇보다도 시대정신의 반영으로서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적절한 교육 형태이므로 마땅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합교육의 윤리적 원리이다.

김병하와 조원일(2005: 44-46)은 실천문제로서 통합교육이 그 지향성과 현실성 간에 보이고 있는 괴리에 대한 심층 분석의 필요를 제기한다. 일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교사가 특수교육 요구 학생을 거의 전일제로 특수학급에 밀어넣는 상황을 놓고 어떤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통합교육의 성공 조건에 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고 또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유용한 연구 결과들이 현장에서 활용되어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특수교육 연구의 많은 성과와 실천이 통합교육의 성공을 전적으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념과 정책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복지 상태의 재정적 개혁과 도덕적 개혁의 영향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본 Cox(1998)의 지적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은 교사와 학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보다 크고 복잡한 구도의 한 부분이라는 주장(Thomas & Loxley, 2001)도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Thomas & Loxley(2001)는 ‘특수교육을 해체하여 통합을 구축한다(Deconstructing Special Education and Constructing Inclusion)’는 철학적 개념을 저서의 제목으로 삼아 완전통합의 이념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특수교육에서 통합교육의 단계를 논의할 때 물리적 통합(1차 통합)--> 교육적 통합(2차 통합)--> 사회·심리적 통합(3차 통합)으로 통합의 질적 심화과정을 위계화 한다고 김병하와 조원일(2003:41)은 적시한다. 또한 박승희(2003:37)는 장애학생에게 교육의 주요 맥락마다 최선의 실재를 제공한다는 것은 단순히 각 맥락에서의 최선의 방법과 전략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장애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장애 개념의 이해가 보다 다차원적이며 종합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교육의 실재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필요성과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 학생에게 최선의 교육 실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 개념에 대한 교사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의 반성적 사고가 요구된다(2003:38).

이 주장은 확고한 이념적 기반이야말로 어떤 교수 전략보다 가장 실질적인 성공 요인을 역설한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이러한 이념적 무장이 비단 좁은 의미의 교육 관계자들에게만 한정되는 범위에 머물 것이 아니라, 범사회적인 문화 인프라로 구축될 필요가 있음을 덧붙여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교육부가 통합교육의 실천을 위한 질성적 측면의 정책으로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하는 학교문화 창조를 제기하면서 설정한 통합교육 추진 방향을 소개한 내용에서는, 일반 학생의 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이 비중 있게 나타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장애학생과 가족은 물론이고, 일반 학생들과 일반교사들, 그리고 일반 학생의 부모와 가족이 통합교육에 관해 전향적인 인식을 갖는 일의 중요성은 현 상황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범사회적 가치로 자리매김될 때 비로소 통합이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립특수교육원도 장애의 인식 개선을 위한 범국민적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정책 방향은 바로 위에서 인용한 통합의 3차 단계인 사회·심리적 통합을 위한 준비들이며, 궁극적으로 장애의 재개념화를 통한 통합 이념의 실질적 정착을 지향하는 것이다. 김병하와 조원일(2003: 41-42)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대정신을 읽어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공동체적 관심사에 대한 성찰적 담론을 통해 통합교육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견해에 공감을 표한다.

근본적으로 특수교육/통합교육이나 장애인 복지는, 인간이면 누구나 천부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unalienable) 기본권으로서의 인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에 대한 범사회적 서비스이다. 일반 학생의 학습권이 특수교육 요구 학생의 학습

권에 당연히 선행한다고 생각하는 풍토가 다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아직은 부인하기 어렵다. ‘일반 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에 의한 모든 학생의 교육 성과 최대화’를 위한 기본 방향인 ‘통합교육의 보편화와 내실화 도모’(교육인적자원부, 2005) 차원에서 장애의 재개념화는 절실한 과제이다.

III. SRV를 위한 장애의 재개념화 필요성

Wolfensberger의 정상화 원리는 교육의 정상화인 통합교육의 이념적 모태이다. 그가 스웨덴의 Nirje로부터 이어받은 정상화 원리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적 이론으로 확립한 SRV(Social Role Valorization: 사회적 역할 가치화) 이론의 구체적 실현은 완전통합의 궁극적인 구현을 위한 방법론적 기제로 기능할 수 있다. SRV는 인간의 인식 과정은 본질적으로 가치 편향적이라고 보고, “장애인들이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부여받도록 하기 위해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획득하고 수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Wolfensberger, 1992). Goffman(1963)이 Stigma에서 말한 ‘훼손된 정체성(spoiled identity)’과 유사한 의미로 Wolfensberger는 ‘이미지 침식(image degrad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가치 부여는 인식자나 관찰자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가치의 기준이란 주관적이면서도 보수적인 측면이 있으며 또한 상대적이며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사회적 역할이란 사회 제도 내에서 특정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의 특성 혹은 기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곧 개인의 정체성과도 연결이 된다. 개인이 사회적 역할에 부여하는 가치와 사회 전체가 부여하는 가치는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개인의 인식이나 가치가 그들이 속한 사회적 맥락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통합교육 현장에서 특수교육요구 학생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부정적 심상(imagery)의 낙인을 해소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곧 정상적인 학습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일이 된다. Thomas & Wolfensberger(1994)는, 타인의 눈에 비치는 클라이언트(정신지체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사회적 가치와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휴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와 일반인들을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긍정적인 심상을 부가하여 긍정적 연상 작용을 일으키도록 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시되고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긍정적 동일시의 역동성이 대중의 태도를 개선시키는 이 원리는 심리적 연구의 결과들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그런데도 많은 서비스들이 이 원리의 긍정적인 잠재력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이 원리와 정면으로 위배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파다하게 많아서, 체계적이고 대단히 의식적 방식으로 긍정적 심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만회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그들은 지적한다.

장애인이거나 가치 박탈된 사람들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가치박탈된 사람들과 스스로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조작보다는 의식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긍정적인 이데올로기의 확산이 훨씬 효과적으로 공헌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긍정적이고 대단히 의식적으로 고양된 이데올로기여야지만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의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Thomas & Wolfensberger, 1994).

SRV는 경험에 기반을 둔 과학적 이론이며, 또한 경험적으로 기술에만 의존해서 휴먼 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과 이론을 결합한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 강화가 효과적이다. SRV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이론적, 실천적 접근들을 제시한 패러다임으로, 이러한 패러다임에 입각한 구체적인 연구와 서비스 기획이 남은 과제이다.

Priestley(1998)가 제시한 장애학의 다중 패러다임에서, 사회적 관념론의 입장은 Wolfensberger의 SRV를 하나의 이론적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관점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심상의 형성에서 문화적 표상과 매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시각을 포괄한다(Barnes, 1996). 포스트모더니즘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는 영향력 있는 장애학자인 Shakespeare(1994)도 장애인의 차별이 장애를 재현하는 문화적 측면에서의 편견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Riley(2005)도 『장애와 미디어』라는 근간에서, 이러한 문화적 재현이 곧 문화적 권력과 등식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설파하고 있다.

Turnbull 등(2004)은 장애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를 비교하면서, 과거의 패러다임이 장애인의 교정("fixing the individual with disability")이었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은 다양한 환경의 교정("fixing multiple environments")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근래 교육자들의 책무성은 표준화검사를 통한 교육적 결과의 평가에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나, 장애 학생에게는 교육적 결과의 측정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IDEA 등의 장애 관련 주요 입법도 교육적 결과를 위한 책무성뿐 아니라 장애학생의 결과적인 삶의 질과도 관련이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교육이 삶의 질의 성취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러한 조화가 정책 차원에서 나타남으로써 교육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이라는 문제를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통합교육이 교육 수혜자 모두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자들의 시야는 보다 넓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삶의 질의 성취와 조화를 이루는 교육의 총체적 효과를 목표로 한 교육자의 책무성은 실로 무한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 환경을 통해 형성되는 학령기 정체성이 개인의 삶의 양식과 질을 가름하는 중요한 분수령임을 생각할 때, 장애/비장애의 이분법적 경계가 해체된 전향적 역할 가치에 대한 인식을 학교문화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은 절실한 것이다. 전통적인 차별의 이데올로기를 넘어 포스트모던한 해체 철학을 기반으로 사회적 역할 가치화에 동참하는 장애담론의 인문학적 확장은 진정한 통합교육의 실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확신한다.

IV. *The Caretaker*. 식민적 권력 담론의 전복을 통한 장애의 재개념화

*The caretaker*는 2005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영국의 극작가 Harold Pinter의 대표작 중의 하나로, 1960년 초연된 이후 평자들의 다각적인 해석과 호평이 이어지며 이제는 현대극의 고전으로 자리매김한 극이다. 이 극은 세 명의 남성 등장인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Aston이라는 인물은 오랫동안 정신병원에서 지낸 경험을 가진 정신장애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Aston과 그의 동생인 긴장한 청년 Mick이 거주하는 공간에 Davies라는 외부인이 등장하여 함께 살다가 ‘관리인’의 제의를 받게 되는 것이 사실적 차원의 설정이다.

한 인물이 단일한 정체성을 고정적으로 지니는 것이 아니고, 복수의 정체성을 지닐 수도 있고 혹은 상반되고 모순되는 정체성을 동시에 지닐 수도 있다고 보는 견해가 현대에 와서는 널리 인정받고 있다(Giroux, 1991:36 참조). 특히 Pinter의 극 세계에서는 등장인물의 정체성이 유동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극중에서 인물들의 이름이 여러 개로 나타난다든가, 극중인물의 직업이나 과거 등이 매우 모호하다거나, 동일한 인물에 대해 다른 등장인물들의 언급과 기억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방식 등으로 반영된다. *The caretaker*에서도 마찬가지로 작가 특유의 모호함과 소위 ‘입증(verification)의 어려움’이 모든 인물들에게 적용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각 인물들의 이력서라 할만한 정확한 사실들보다는, 작가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극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관객의 할 일이다. 즉 Pinter극의 정수는 사실적이고 평범해보이는 설정에서 출발한 연극이 극적 전개와 더불어 드러내는 함축적 진실이다. 평범한 일상을 배경으로 막이 오른 *The caretaker*에서도 ‘방’은 곧 영토가 되어 제국주의적 개념과 연결되고, 등장인물들 간의 차별적 위상은 지배 주체와 객체의 형성이라는 정치적 질서 수립의 과정을 거치면서 식민 담론과 궤를 같이 하는 하나의 연극적 텍스트를 산출하게 된다. 이 극에서 Davies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Bhabha(1994:85)가 말하는 “문명화라는 거창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모방과 아이러니와 반복으로 가득 찬 소극(farce)적인 식민 담론의 텍스트”이다. Bhabha(1994:86)는 ‘식민적 모방(colonial mimicry)’의 개념을 “거의 같지만 아주 같지는 않은 차이의 주체로서의 타자를 향한 열망”이라고 정의한다. Davies는 이러한 차이의 주체를 향한 ‘부분적 현존(partial presence)’을 도모하며 식민적 부재의 공포를 드러낸다.

Davies가 Aston과 Mick의 영토에 진입한 이후 이웃에 살고 있는 유색인종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Davies는 자신의 문화·정치적 위상을 백인 남성 문화권으로 설정함으로써 ‘주변’의 유색인종에 대한 우위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식적 토대를 드러내보인다. 특히 그의 불평의 대상인 이웃이 인도인들이나 흑인들이나, 과거 영국의 제국주의 확장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상기시킴으로써, 그의 제국주의적 의식과 담론의 배움을 더한다.

식민 지배자들이 ‘인간이되 완전한 인간이지 못한’ 피식민인들을 교화시키듯, 자신을 지배 주체로 자처하고 상대방을 교화의 대상이요 피지배자로 설정하여 차별적 위상을 정립해가는 과정에서는, Said가 말하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의 형성과정이다. Said(1978:3)는 오리엔탈리즘을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위압하기 위한 서양의 스타일”이라고 요약 정의하는데, 이렇게 언제나 옳고 우월한 주체와, 반대로 언제나 틀리고 열등한 객체의 이항대립적 담론은 문화적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 제국주의적 지배를 위한 식민 담론의 기저에는, 식민지의 고유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이질적인 문화는 폄하하는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항구조의 담론이 필연적으로 깔려있다. Davies가 의도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드러내는 인식의 폭력성은 바로 이러한 제국주의적 발상이요 식민주의적 관행에 다름 아니다.

Said는 문화나 인종의 이분법적 정체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예를 들면 동양을 고정된 총체로서 논하는 것은 유럽인들의 세계 지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된 신화를 재생산하는 데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그런가 하면 Bhabha(1994:66)는, “식민 담론의 한 중요한 특징은, 타자성을 이념으로서 구축하는 데 있어 ‘고정(fixity)’의 개념에 의존한다”고 지적한다. Davies가 주변의 유색인종들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이웃을 고유한 개인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그들보다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그들을 자신이 만든 방식으로 집단화시키고 타자화시켜 멸시함으로써, 자신을 중심으로 타자화한 유색인종 군에 대한 지배 이데올로기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Said(1995:29)는, 오리엔탈리즘이나 아프리카니즘 등 민족 집단의 정체성도 이제는 신이 부여한 본질로서 분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 극에서 Aston은 Davies의 주인이되 정신적 장애를 안고 있으며 말수가 적은 인물이다. 그는 집안에 고장나고 부숴진 물건들을 잔뜩 모아놓고 애지중지하며 언젠가 쓸모있는 물건들이 되리라고 믿는 듯하다. 그러나 극중 내내 만지작거리는 고장난 토스터를 그는 끝내 고치지 못하고 만다. 어딘가 고장이 나서 온전히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물건들을 작가는 Aston에 대한 은유적 소품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Aston이 Davies에게 집안을 ‘장식’해줄 것을 요구하지만, Davies는 집안 장식을 할 능력도 없거니와 Aston의 요구에 순순히 따를 의지도 없다. Foucault(1979:32)는 “권력은 소유되기보다는 행사되는 것이고, 지배계급이 획득하거나 소유하는 특권이 아니라 그들이 차지하는 전략적 입장의 총체적 효과”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집주인으로서의 Aston의 권력도 소유하는 특권이 되지 못하므로, Davies에 대한 지배자로서 전략적 입장을 통해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Davies가 자신을 주체에 접근시키려 하는 식민적 모방의 양태를 보이면서, Mick과 결탁하여 자신을 중심으로 Aston을 타자화시켜 부재의 대립항으로 고정시키려 한다. 유럽과 미국의 보편화 담론은 비서구권 국가들의 침묵을 전제로 한 결탁이고 포섭이며 위압(Bhabha, 1995)이라는 지적처럼, Davies가 주체를 향한 열망으로 반복하는 식민적 모방에서도 문명의 보

편화 담론은 객체를 침묵시키는 기능을 한다.

Davies가 Mick에게 Aston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으며 Aston을 조롱하려 드는 것은 그들 관계에 있어 반전된 위기의 절정 국면이다. Aston이 자신의 정신병력에 대한 긴 고백의 대사를 말할 때, Davies의 모습은 어둠 속에 묻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무대지시에 나타나 있다. Aston의 긴 대사가 고립된 상태에서 말해진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의 언어가 실존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Foucault(1993:17)는 『담론의 질서』에서 배제(exclusion)의 원리들을 지적하면서, “중세 말 이래로 광인의 담론은 다른 사람들의 담론처럼 통용되지 못해왔다. ... 배제되는 경우이건 이성에 의해 특별한 취급을 받는 경우이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실존하지 않았다. 광인의 이 모든 담론들은 잠음으로 화했다”고 말한다. Aston이 자신의 정신병력을 고백하는 장광 설도 진지하게 청취되고 인정될 수 없는 권력구조 안에서 ‘잠음화’하고 만다. Davies는 Aston을 목살하고 그에 대한 우위를 점하려 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Mick과 결탁하여 Aston을 배제하고자 시도하기에 이른다.

극의 후반에서 Mick은 Davies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궁전처럼 만드는 거창한 건축 설계를 말함으로써 Davies에 대한 우위를 과시하고 그 영토로부터 Davies를 배제 시켜간다. 건축에 관한 Mick의 길고 현란한 대사(III, 69)는 문화적·정치적 거리를 형성함으로써 Davies에 대한 자신의 위상 설정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 용어를 Davies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그에 대한 사형선고가 된다고까지 Esslin은 평가한다(1973:227). 현란한 건축 용어들을 늘어놓으며 지식과 권력이 결탁한 지배 담론으로 Davies를 압도한 Mick은 급기야 Davies에게 “넌 야생동물에 지나지 않아, 넌 야만 인이라구.”(III, 82-83)라고 외치게 된다. 극의 초반에 그가 설정한 문명/비문명의 이항 구도에서, 이제 Davies 자신이 비문명에 편입되며 문명권에서 배제되기에 이른다. Spivak(1990:36)은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까지도 심리적-사회적, 민족적-경제적, 그리고 역사적-이데올로기적인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모든 차별의 양태에는 필수적으로 배제가 따르므로 어느 정도는 폭력적인 경향이 있게 된다고 설파한다. 극중인물들의 대사가 내포하는 배제와 폭력의 의미는 이러한 문화적 기반의 담론이 가지는 속성이라 할 수 있다. Silverstein(1993:23)도, Pinter극에서 “개인적 힘은 문화적 힘의 결과이자 문화적 힘을 전달하는 매체”라고 지적한 바 있다.

Davies가 주변의 유색인종과 장애인인 Aston에 대해 설정했던 문화정치학적 메커니즘이 자신의 파국에 적용되는 아이러니는, 식민적 모방의 욕망을 금지의 욕망으로 규명한 Bhabha의 지적을 상기시킨다. Bhabha(1994:90-91)는 식민적 모방의 욕망이 전략적 목표로 삼는 ‘현존의 환유(metonymy of presence)’는 결국 식민 담론의 부적절한 기표들이라고 지적하면서, ‘거의 같지만 하얗지는 않은’ 피부를 한 피식민인, ‘영국적인 것과 영국화된 것의 차이’ 등을 현존의 환유로서 적시한다.

이들의 집에 가득했던 잡동사니 물건들은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고장난 물건들이고, 사람들이 등을 돌려버린 물건들이며, Aston이 고쳐보려고 애를 써도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 물건들이다. 극의 초반에서 그 물건들은 장애를 지닌 Aston에 대한 은유적 소품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막이 내리면서 그 잡동사니들은 Davies의 이미지와 중첩되는 소품으로 떠오른다. 처음부터 Davies는 버려져 떠돌던 부랑아였던 것을 Aston이 마치 잡동사니를 모으듯 자기 집으로 데려와 거처를 제공해주었던 것이다. Aston의 집에 들어온 이후로 Davies는 자신의 신원을 입증해줄 서류가 Sidcup이라는 곳에 있는데, 곳은 날씨에 신을만한 신발도 마땅치가 않아서 갈 수가 없다고 푸념을 해댄다. Davies는 Aston이 구해준 신발에 대해서도 신발이 잘 맞지 않아 신을 수 없다고 말하며 도덕적인 죄책감을 Aston에게 전가하는 전략까지 구사한다(Billington, 1996:119). 정신장애를 안고 있는 Aston이 자신의 과거 정신 병력을 고백하는 것과, 스스로 입증 불능의 과거와 불안정한 정신상태를 드러내버리는 Davies의 태도는 커다란 대조를 이룬다. 출신도 불확실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이 소리만 요란한 Davies는, Aston이 집에 가져다놓은 잡동사니들에 병행하는 이미지와 연결시키기에 훨씬 더 적절해보이는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한 Aston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Aston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하여 무시하고 배제하려 드는 장애(인)관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그러한 가치관이야말로 버려야 할 폐기물임을 반증하고 있다.

사실상 이 극에서 Davies는 불특정 다수의 인간상을 반영하고 있다. Pinter를 비롯한 많은 현대 극작가들에게 있어 ‘부랑아’의 이미지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지 삶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어 방황하는 현대인의 원형(archetype)으로 그려지곤 한다. Davies라는 인물의 경우도, 무대 위의 집에 오기까지 어디서 무얼 했는지, 그리고 그 집에서 나가게 되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지낼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또한 Davies는 이름을 묻는 Mick의 질문에 Jenkins라고 대답하여, 극중에서 그의 이름은 Bernard Jenkins와 Mac Davies 두 개로 나온다. 게다가 이 두 이름은 언의의 지방색으로 보아 Scott, Irish, 그리고 Welsh의 혼합이라고 한다(Dutton, 1986:103). Davies에게는 고향도 분명한 한 곳이 아니고 애매하게 몇 군데의 중간 지점쯤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모두 Davies가 특정인이라기보다는 그저 현대의 한 시민이라는 해석을 뒷받침해주는 설정들이다.

Davies와 같은 많은 보통 사람들이 Aston과 같은 사람들에 기대어 살고 있으면서도 아이러니컬한 지배관계를 상정하여 부적절한 인권과 인격의 침해를 범하는 경우가 무대 위의 연극에서만 나타나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또한 연극 The Caretaker에서 과연 누가 누구를 돌보는 관리인인가도 생각해볼 일이다. 장애가 있는 Aston을 Davies가 돌보는 것인지, 아니면 잔뜩 떠돌이 부랑아 Davies에게 정신 장애인 Aston이 거처와 식사를 제공하며 생활을 돌보고 있는 것인지도 이 연극을 다시 보는 관객에게 흥미로운

관점이 될 수 있다.

Davies는 말수가 적고 관대한 Aston의 태도를 처음에는 주인으로서의 우월함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Quigley, 1975:120). 그러나 Aston과 Mick이라는 인물에 대해 좀더 알고나서는 전혀 다른 태도로, Mick과 결탁하여 Aston을 배제시키려는 어설픈 시도를 한다. "Davies는 모든 사람을 위협적인 강적이 아니면 얼간이로 보는 경향이 있다"(Nightingale, 1982:352)는 평자의 지적은 흥미롭고도 공감이 가는 지적이다. Davies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일련의 식민적 모방의 양태는 이 극을 현대의 대표적인 비희극(tragicomedy)로 만든 극적 장치들이다. 현대의 초라한 반영웅(anti-hero) Davies가 많은 관객의 웃음을 유발하는 어처구니없는 언행을 남발하는 동안, 의식 있는 관객은 이 극이 일상의 전형적인 식민 담론을 통쾌하게 전복시키고 있음에 카타르시스(Catharsis)를 느끼게 된다.

V. 결 론

Winzer(1994:334)는 미국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을 정리한 그의 저서에서, 특수교육과 일반 교육의 완전통합을 예견하면서 장애와 비장애라는 이분법적 관점의 소멸을 전망한다(김병하 & 조원일, 2005 재인용). 또한 앞서 인용한 Thomas & Loxley(2001)의 저서(Deconstructing Special Education and Constructing Inclusion)에서 보듯이, 특수교육/일반교육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의 해체가 곧 통합의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보적 목소리도 적지 않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해체는 여성과 남성, 동양과 서양, 흑인과 백인,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 등 이분법적 대립 구도의 경계로부터, 이제 장애/비장애라는 경계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통계적 의미의 소수자가 아니었던 여성과 동양과 흑인과 대중은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정치력을 발휘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었다. 시대정신의 변천은 역사적으로 소외되고 경시되어온 약자 집단의 사회적 위상과 권익 확보에 큰 불꽃을 터주었고,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는 문화적 담론의 확장과 재생산은 이 시대의 소리 없는 혁명과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 Said(1995:29)는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을 본질적인 차원에서가 아닌 대위법적 양상블로 보면서, 희랍인들은 늘 야만인들을 필요로 했고,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인과 동양인들을 필요로 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대위법은 곧 권력 담론의 형성을 위한 실재하지 않는 구도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역사화된(dehistoricized) 사람들--여성, 원주민, 피식민인 등의 타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한 빈약한 서사로서의 역사'(Bhabha, 1995)는 이제 이분법의 해체와 통합의 문화로 편입되어 새로운 '거대 서사'로 대체되고 있다. 잠재적인 장애담론의 확

장과 활성화는 장애를 포함하는 통합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다.

Gabel(2005)이 설파하듯이, 장애의 미학(Aesthetic of Disability)은 억압적인 사회 현실에 맞서 그 현실을 해방시키는 전복적 담론이다. *The Caretaker*에서 Davies는 장애인 Aston을 지배하고 식민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시도하지만, Aston의 의연한 의지와 Mick의 형제애 앞에서 초라한 국외자로 전락한 본인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극에서 사실상의 흐름을 주도하는 인물은 Aston이라고 할 수 있다. Kane 같은 비평가는 극중의 가방놀이 장면(II, 47-48)에서 이 게임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Aston임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극적 장치는 이 극의 무대인 ‘방’을 통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극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지적한 다(1993:81). 또한 Dukore는, 이 가방놀이 장면이 Davies가 당하게 되는 모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1982:51).

이 극에서 묘사된 Davies는 불특정 다수의 보통사람을 대변하는 현대 소시민의 원형과도 같은 인물로 등장한다. 그러한 그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장애 개념을 가지고, 관습적인 타성으로 이분법적 문화 척도의 이점을 누리고자 하는 시대착오적 인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관객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본고에서는 이 극을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를 주요 모티프로 하는 전복적인 식민 담론을 읽어내는 연극 다시 보기를 시도함으로써, 훌륭한 문학 작품이 지니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발견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사회적 역할 가치화를 위한 장애담론의 확장에 일조하여, 통합으로 이르는 길에 동참하고자 하였다.

예술 작품을 포함한 현대의 다양한 문화 텍스트들은 시민사회 의식의 가늠자이면서 동시에 의식의 방향을 설정하는 문화적 담론의 장이 된다. 이러한 문화 텍스트를 통한 장애담론의 활성화가 장애 개념의 전향적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 21세기 지성의 중심 과제는 대중 속의 주역이 되어 지식의 민주화를 제고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지난 시대에 대학의 지성이 시민사회의 형성에 주된 역할을 했다면, 이 시대에 요구되는 과제는 시민사회의 기술적·문화적 형식을 개발하는 일이라는 것이다(Delanty, 2001). Abberley(2002)의 주장처럼, 순수한 기술적 담론(self-styled ‘purely’ descriptive)이건 정치적(political) 담론이건 학문적 경계를 아우르는 장애담론의 활성화가 장애 개념의 재정립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은 분명하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5). 2005년도 특수교육 운영 계획.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
 김병하(2003). 특수교육에서 좋은 논문 쓰기. *BK21 소식지*, 5:1.
 김병하(2005).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특수교육(학)적 함의. *특수교육학연구*, 40(1), 1-22.

- 김병하, 조원일(2005). 한국에서 통합교육의 정책적 지향과 실천 과제: 비교사적 관점에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4), 37-53.
- 박승희(2003). 장애개념화의 진전이 장애인 지원 구축에 지니는 함의. *제8회 이화특수교육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42.
- 미셸 푸코(1993). *담론의 질서*. 이정우 역. 서울: 도서출판 새길.
- Abberley, P.(2002). Work, disability and european social theory. Eds. Barnes, C., Oliver, M., & Barton, L. *Disability Studies Today*. Cambridge: Polity Press, 120-138.
- Barnes, C.(1996). Theories of disability and the origins of the oppression of disabled people in western society. Ed. Barton, L. *Disability and Society*, 43-60.
- Bhabha, H. K.(1994).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 Bhabha, H. K.(1995). In a spirit of calm violence. *After Colonialism: Imperial Histories and Postcolonial Displacements*. Ed. Gyan Prakash.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326-343.
- Billington, M.(1996). *The Life and Work of Harold Pinter*. London: Faber and Faber.
- Cox, R. H.(1998). The consequences of welfare reform: how conceptions of social rights are changing. *Journal of Social Policy*, 27(1), 1-16.
- Delanty, G.(2001). *Challenging Knowledge: The University in the Knowledge Society*.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Dukore, B.(1982). *Harold Pinter*. London: Macmillan.
- Dutton, R.(1986). *Modern Tragicomedy and the British Tradition*, Sussex: Harvester Press.
- Esslin, M.(1973). *Pinter: A Study of His Plays*. NY: W. W. Norton.
- Foucault, M.(1979).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NY: Vintage Books.
- Gabel, S. L. (2005). *Disability Studies in Education*. NY: Peter Lang.
- Giroux, H. A.(1991). *Postmodernism, Feminism, and Cultural Politics*.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Goffman, E.(1968).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a Spoiled identit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Kane, L.(1993). *The Caretaker. The Pinter Review: Annual Essays 1992-93*. Ed. F. Gillen & S. H. Gale. Tampa: University of Tampa Press, 80-82.
- Nightingale, B.(1982). *A Reader's Guide to Fifty Modern British Plays*. London: Heinemann Education Books.
- Pinter, H.(1977). *Complete Works: Two*. NY: Grove Press.
- Priestley, M.(1998). Constructions and creations: Idealism, materialism and disability theory. *Disability and Society*, 13(1), 75-94.
- Quigley, A. E.(1975). *The Pinter Proble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iley, C. A.(2005). *Disability & the Media: Prescriptions for Change*. London: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 Said, E.(1978). *Orientalism*. London: Penguin Books.
- Said, E.(1995). Secular interpretation, the geographical element, and the methodology of imperialism. *After Colonialism: Imperial Histories and Postcolonial Displacements*. Ed. Gyan Prakash.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1-39.
- Shakespeare, T.(1994). Cultural representation of disabled people: dustbins for disavowel? *Disability and Society*, 9(3), 283-301.
- Silverstein, M.(1993). *Harold Pinter and the Language of Cultural Power*. Lewisburg: Bucknell University Press.
- Spivak, G. C.(1990). *The Post-colonial Critic: Interviews, Strategies, Dialogues*. NY: Routledge.

- Thomas, G. & Loxley, A.(2001). *Deconstructing Special Education and Constructing Inclusion*. Inclusive Education Series. Open University Press.
- Turnbull, H. R., Turnbull, A. P., Shank, M. & Smith, S.(2004). *Exceptional Lives: Special Education in Today's School*(4th ed.).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Prentice Hall.
- Wolfensberger. W.(1992). *A Brief Introduction to Social Role Valorization as a High-Order Concept for Structuring Human Services*. 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 Wolfensberger. W. & Thomas S.(1994). The importance of social imagery in interpreting societally devalued people to the public. *The International Social Role Valorization Journal*. 1(1), 1-5.

K C I

A Humanities Approach to Disability Discourse for Inclusive Education and SRV

Chun, Sun-Oak

Joongbu University

Kwak, Seung-Chul

Kongju University

<Abstract>

The emergence from the medical model can be tracked to the early history of disability discourse. Nowadays disability is defined as a condition imposed on individuals by society. The contemporary leading thinkers on disability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abandoning the old view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s abnormal or inferior. Special educational needs also belong to the unalienable human right. That is essential to facilitate and realize the inclusive education in general school, the normalization in education.

The principle of Scandinavian Normalization begets the theory of Social Role Valorization in the United States, which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social value and public imagery of disability. Recently based on the SRV, there begin to appear various studies of disability in the perspective of Humanities, especiall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ublic discourse of disability and cultural text, such as literary text and media.

The postmodern interpretation of cultural text transforms the consciousness of people to positively conceptualize disability in terms of democratic human right, through complex feedback system of the knowledge-based information society. In this re-interpretation of *The Caretaker* by Harold Pinter, the audience become to recognize the reversal of colonial discourse represented by Davies, who is the archetype of Everyman.

key words: inclusive education, SRV, disability discourse, Humanities, drama.

논문 접수: 2007. 2. 15 심사 시작: 2007. 2. 20 게재 확정: 2007. 3. 28